

## 학교부적응 학생의 대안학교 재적응 교육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최해룡\*  
가온대안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부적응 학생의 재적응 교육이 갖추어야 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구청소년대안교육원 부설 가온대안학교의 2012년 2학기 재적응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 중 2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284개의 개념과 70개의 하위범주, 또 그 하위범주를 더 추상화시킨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14개의 범주가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재적응교육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이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대안학교 재적응교육 적응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패러다임 모형을 사용하여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대안학교 재적응교육 적응과정에서의 중심 현상은 '일탈행동이 일어남'이었으며, 이를 이끄는 인과적 조건은 '학습능력과 학습태도의 결여', '청소년기 발달에 따른 부적응'이며, 맥락적 조건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부모님과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 속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증재하는 조건은 '가온대안학교 재적응교육에 참여함', '학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바르게 이끌어주는 교사와 만남', '자기이해와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온학교 교육', '부모님의 변화와 선생님의 도움'이었다. 또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재적응교육을 통한 자기이해와 성찰의 추구', '실현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함'이었고, 결과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와 학교생활과 대인관계 적응'으로 나타났다. 과정분석을 통해 재적응교육과 관련된 변화단계를 분석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부적응 단계', '일탈행동 단계', '재적응교육 참가단계', '배움과 이해 단계', '변화와 적응 단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대안학교 재적응교육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목표 추구에 노력하여 변화와 적응하기'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학교부적응, 대안학교, 재적응교육, 근거이론

\* 본 논문은 경북대학교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해룡, E-mail: chy0119@hanmail.net

최근 지역의 D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사건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많은 언론들이 다투어 학교폭력의 실태와 학교와 우리사회의 학교폭력 대처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더욱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정부에서도 총리가 직접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와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 가해학생 즉시 등교정지, 학생생활기록부에 폭력관련 사실 기재 등의 처벌 중심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돌리는 것으로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생개인의 성향이나 가정환경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제한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생의 개인성향이나 가정환경의 문제만으로 돌릴 수 없다. 많은 연구들은 학교폭력 등 학교부적응 학생문제에서 사회환경과 교육환경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강기애, 2014; 박근수, 2003; 심의보, 2015; 양국선, 2001).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교권침해나 지시불복종 이외에도 학교부적응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학교부적응 학생문제에 대하여 학교나 교육청 등의 교육기관 뿐 만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학교부적응 학생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들 중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지도방안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등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교 밖 교육기관에 특별교육(혹은 대안교육)과 같은 재적응을 위한 1주~4주과정의 단기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있는데 이를 재적응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적응 교육기관에 의뢰되는 학생들 중에는 한두 번, 혹은 여러 번의 재적응 교육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전의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의뢰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학교부적응 학생들 중 많은 수가 재적응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효율적인 학교재적응 교육의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학교부적응 학생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적응 교육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최해룡, 김성희, 2012).

학교부적응 학생의 상담 및 지도를 위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양적연구로 부적응의 요인이나 실태를 분석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특정한 부분에서의 효과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재적응 교육에 대한 연구로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들은 학교부적응 학생 문제의 해결방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이은정, 2001),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접근으로 개인의 심리적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학교부적응의 원인을 학생 자신에게 두고 이들에게 부족하거나 결여된 특정 심리적 요소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부적응의 원

인을 주로 개인에게만 한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접근은 학교부적응의 원인 중 사회, 학교, 가정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근래에 학교부적응 학생 대안학교 재적응 교육이나 위탁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가 몇 편 이루어졌다. 박영재(2004)는 단기 재적응 대안교육 기관인 울산 '두남학교'에서 3주 과정의 재적응 교육을 받은 5명의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질적 사례연구를 하였고, 황인국(2007)은 장기 위탁형 대안학교인 서울 '도시속 작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8명의 학생에 대해 역시 질적 사례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대안학교의 교육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행동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재적응 교육 이후 학생들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장기 위탁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그런데 대안학교 재적응 교육에서 결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과정 전체에 더 중점을 둔 연구를 통해서 대안학교의 교육적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최근 최해룡, 김성희(2012)는 대구 도시형대안학교인 '가온학교'의 재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219명의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적응 교육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적응 교육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경험을 범주화하고 이를 논의하여 대안학교 재적응 교육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재적응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부적응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교에 부적응하게 된 원인에서부터 재적응 교육에 잘 적응하여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의 전체 경험을 대상으로 부적응에 빠지게 되는 과정과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가온대안학교 재적응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학교부적응에 빠지게 된 과정과 재적응교육 과정에서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요소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서 재적응 교육 과정이 갖추어야 할 교육적 방안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상담의뢰를 받고 학교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재적응 교육이 의뢰된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교육 중심의 일반학교 교육과는 다른 대안적 접근을 통한 대안학교의 교육 사례로 접근한 연구이다. 이 학교부적응 학생 재적응 교육에 관한 질적 연구는 중등교육 현장에서 학교부적응 학생 재적응 교육이 갖추어야 할 효율적인 방안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학교부적응 학생 지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2년 '가온대안학교' 부적응 학생 재적응 교육 참가학생 중 연구 참가자 26명을 선발하여 교육과정에서의 이들의 경험을 질적 연구의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대안학교 재적응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부적응의 원인은 무엇이며 재적응교육 적응과정은 어떠한가?'이다.

## 방 법

###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재적응교육 적응과정’을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제시하고자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체이론이란 실제에서 이론을 발달시키는 연구방법이라는 의미이다. Gelso(1979)는 연구자가 선택하는 탐구전략과 연구방법은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에 비추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마음의 세계와 심리, 행동 및 관계의 역동을 초점으로 다루고 있는 상담과 교육의 영역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용될 때 더 풍부한 자료와 시사점과 시각이 드러남으로써 인간문제의 이해와 성장과 발달촉진을 위한 더 좋은 방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질적 연구방법에는 다양한 접근들이 있다. 내러티브, 현상학,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근거이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근들 중에 어떤 접근이 유용한가 하는 관점은 그 연구의 중심 목적 또는 초점에 어떠한 접근이 가장 적합한 방식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내러티브의 초점은 한 개인의 인생에 맞추어져 있으며, 현상학의 초점은 개념 또는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체험의 본질이다. 문화기술지의 목적은 문화공유 집단을 기술하는 것인 반면에, 사례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게 되는데, 종종 이슈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갖고 이슈를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근거이론의 목적은 하나의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Creswell, 2007).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근거이론이 본 연구주제에 대한 방법론으로 적합한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안학교의 재적응 교육에 참여한 학교부적응 학생의 생각이나 행동이 갖는 의미, 상호작용 등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근거이론은 귀납적 접근방법으로서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이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자료로부터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와 과정의 결합을 통해 이론을 도출해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학교부적응에서 벗어나 적응하는 과정은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고 해석하고 정의내리는 심리사회적 주제이다. 이런 점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상담 및 교육을 통한 부적응 학생 지도방안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학교부적응 학생의 재적응 교육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어서, 본 연구가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재적응 교육을 통해서 적응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이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이

론 활용의 적합성을 찾을 수 있다.

## 연구자의 준비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 자신이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Strauss & Corbin, 1998), 연구자의 자질, 역량 등이 질적 연구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연구자의 배경이나 경력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면담기술은 자료수집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정숙, 2004). 또한 근거이론 방법에서 연구의 질은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을 얻는 것은 연구 환경에 익숙해져서 자료에 민감해지는 것과 연구와 관련된 개념을 다루는 문헌에 몰두함으로써 타당한 범주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4).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주제에 대한 지식과 실천적 경험이 요구되며,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손순용, 2007).

본 연구의 연구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1급 정교사와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27년간 일반 중·고등학생들과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교육한 경험을 가진 교육 및 청소년상담 전문가이다. 연구자는 역사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1997년부터 10여 년간 재직학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부터 4년간 한국카운슬러협회 대구지회 사무국장으로서는 대구지역의 중, 고등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실을 운영하였다. 연구자는 2006년 8월 대구에서 도시형대안학교인‘가온학교’를 설립하고 교직에서 명퇴한 이후에도 2007년부터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재적응교육을 7년간 운영하고 있다.

질적 연구와 관련해서 본 연구자는 2011년 8월 상담학회에서‘가온대안학교’에서 재적응교육을 실시한 2007년부터 5년간의 부적응학생 지도와 관련된 경험과 학부모 및 학생 상담기록, 소속 학교의 교육의뢰서, 생활기록부 등 학생관련 문서, 학생경험보고서, 소감문, 사전사후 심리검사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학교부적응 학생의 대안학교 재적응교육 프로그램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리고 2012년 6월 한국상담학회지인 ‘상담학연구’에 이 논문이 게재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절차에서도 재적응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참여 학생들과의 면담이나 상담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론적 민감성을 향상시켰고, 진행 과정에서도 지도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개별 연구자의 조언을 통해서 연구의 질을 높였다.

## 연구참여자

근거이론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기초하여 참여자를 선택한다.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은 이론의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을 표본추출하는 과정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을 사용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론적 표집은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에 도달하면 멈추게 된다. 이론적 포화란 분석 도중 더 이상 새로운 속성, 차원 및 관계가 나오지 않고 분석할 수 있는 변화를 대부분 설명해 더 이상 자료수집이 필요가 없는 지점을 말한다(안영숙, 2012).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이론적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표집하여 개인면담을 하였고, 또 이론적 표본추출과 관계없이 재적응교육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간 동안에 집단포커스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학교부적응 학생으로 대구의 도시형대안학교인 가온학교의 2012년 2학기 재적응 교육(특별교육)에 참가한 학생 중 교육과정에서의 관찰과 경험보고서, 소감문, 사전·사후검사 등을 통해서 교육성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과 부모님에게 연구 참가의사를 타진하여 이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8명을 개인면담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표집과 관계없이 2012년 10월과 11월에 재적응교육에 참가한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한 후 교육기간 중에 집단포커스면담을 8회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26명의 학생들이 짧게는 1회~2회, 길게는 4회 면담에 참여하여 번을 털어놓았는데 그 중 18명의 학생들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는 개인면담 참여자 8명과 집단포커스면담 참여자 18명 등 총 26명의 학교부적응 학생이 참여하였다.

## 자료수집

Strauss와 Corbin(1998)에 의하면 자료수집, 분석 그리고 최종적인 이론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특히 근거이론 방법에서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은 상호 교차하는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권금주, 2007).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은 2012년 9월에 첫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이 시작되어 2012년 12월 마지막 연구 참여자와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일대일로 진행되었는데,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한 번 연구목적에 비롯해 비밀 보장, 녹음, 자료 처리 등과 같은 윤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2부 작성하여 나눠가졌다.

면담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생활, 교사와의 관계, 가족관계, 교우관계, 일탈행동 그

리고 가온학교 재적응교육 기간 중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면담장소는 가온대안학교 내에 있는 상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다. 면담을 위한 만남은 1회로 하였고, 추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전화로 확인하였다. 포커스집단 면담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학교생활, 교사와의 관계, 가족관계, 교우관계, 일탈행동 그리고 가온학교 재적응교육 기간 중의 경험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주제를 정해서 진행되었다. 장소는 가온대안학교의 특별교실에서 본 연구자와의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다.

## 자료분석

자료 분석절차는 Strauss와 Corbin(1998)의 분석방법에 의해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절차를 따라 분석하며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근거이론 방법은 자료 속에서 개념들을 발견하고, 그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 진술들을 만들고, 그 가설 진술들을 통합해서 실제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실체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안영숙, 2012). 본 연구자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나 가정 그리고 교우관계에서의 경험과 일반학교에서의 교육과는 달리 가온대안학교 재적응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으며,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행동, 그리고 변화와 그 의미들을 탐색하면서 연구에 임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개방코딩(open coding)은 이론구축의 기초단계로서 개념의 발견이 초점이 된다. 개념이란 이름이 붙여진 현상이다. 이것은 연구자가 자료 내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밝혀진 사건, 물체, 작용/상호작용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현상을 명명하는 것 이면의 목적은 연구자가 유사한 사건이나 사물을 공통의 이름표나 분류 아래에서 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Strauss & Corbin, 2001b). 이렇게 개념화를 하면서 많은 양의 자료를 줄일 수 있고 관리하기 쉬운 자료로 축소시킬 수 있다(구차순, 2007).

다양한 개방코딩 방식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료의 줄 단위 분석과 문장과 문단의 코딩을 통해서 개념들을 발견하고 그 개념들의 공통속성에 의해 떠오른 의미를 범주화 작업을 거쳐, 범주화한 것을 분류함으로써 범주들 간의 관계를 구분하였다. 초기 명명화 단계에서 근거이론 연구경험이 있는 교육학전공 교수님의 지도를 거쳐 몇 차례 수정 끝에 최종적인 개념과 범주들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추출된 범주들이 학교부적응 학생의 대안학교 재적응교육의 적응과정과 관련된 요인들이 되었다.

두 번째 단계인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에서 분해된 자료를 재조합하기 위해서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범주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코딩이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현상을 맥락화하기 위

해‘왜, 어떻게, 어디서, 언제, 어떤 결과로’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혀낸다. 범주들 사이의 구조는 현상과 연관된 문제, 사건, 쟁점이 위치하고 일어나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고, 과정은 특정문제, 사람, 기관, 지역사회의 작용/상호작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준다.

이와 같은 구조를 과정과 연결시키는 통합과정에 사용되는 분석적 도구를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패러다임의 구성요소는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가 있다.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을 대변하는 인과적 조건, 현상에 속하는 속성으로 어떤 특정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구체적인 조건으로 맥락적 조건,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면서 변화시키는 중재적 조건이 있다. 작용/상호작용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며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을 말한다(김명숙, 2011; Strauss & Corbin, 2001b).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들을 재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석적 도구인 패러다임에 따라 범주들을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체계화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대안학교 재적응교육 적응과정과 관련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 후 패러다임 모형에서의 작용/상호작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과정분석(process analysis)을 통해 현상에 대한 반응이나 대처 전략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파악하였다.(안영숙, 2012). 이 과정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대안학교 재적응교육 적응과정에서의 변화 단계를 파악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상호 연결된 개념으로 제시하되, 범주들을 하나의 더 큰 이론적 도식과 연결시켜서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핵심범주를 결정하여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 간에 이론이 구축되어 가도록 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선택코딩을 통하여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통합은 핵심범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연구 참가자의 두드러진 쟁점이나 문제가 무엇으로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 연구타당도 검증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성을 통해 연구 현상을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 개인의 편견을 극복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질적 연구의 평가를 위해서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 고유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



퇴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일관성, 중립성, 사실적 가치, 적용성의 네 가지 측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연구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슷한 참여자와 비슷한 설정에서 반복되었을 때 그 연구결과가 동일한 것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일관성이라는 용어보다 감사 가능성(auditability)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보다는 오히려 경험의 다양성이 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한 연구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갈 수 있고, 연구자의 자료, 시각, 상황에 따라 전혀 모순되지 않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노력하였고, 자료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검증은 받는 등 연구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중립성(neutrality)은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이라 할 수 있는데, 신뢰할 수 있고 사실적이며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의미하며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될 때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 시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고, 반구조적인 면담으로 최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연구의 참여자들이 처한 맥락 안에서 얼마나 믿을만한 사실을 발견 하였는가 이며 신빙성(credibility)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였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추출하기 위하여 많은 재적응교육 참가 학생들을 만나고 이론적 표본추출을 시도하였고, 보다 사실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참가학생 부모님과도 면담을 하여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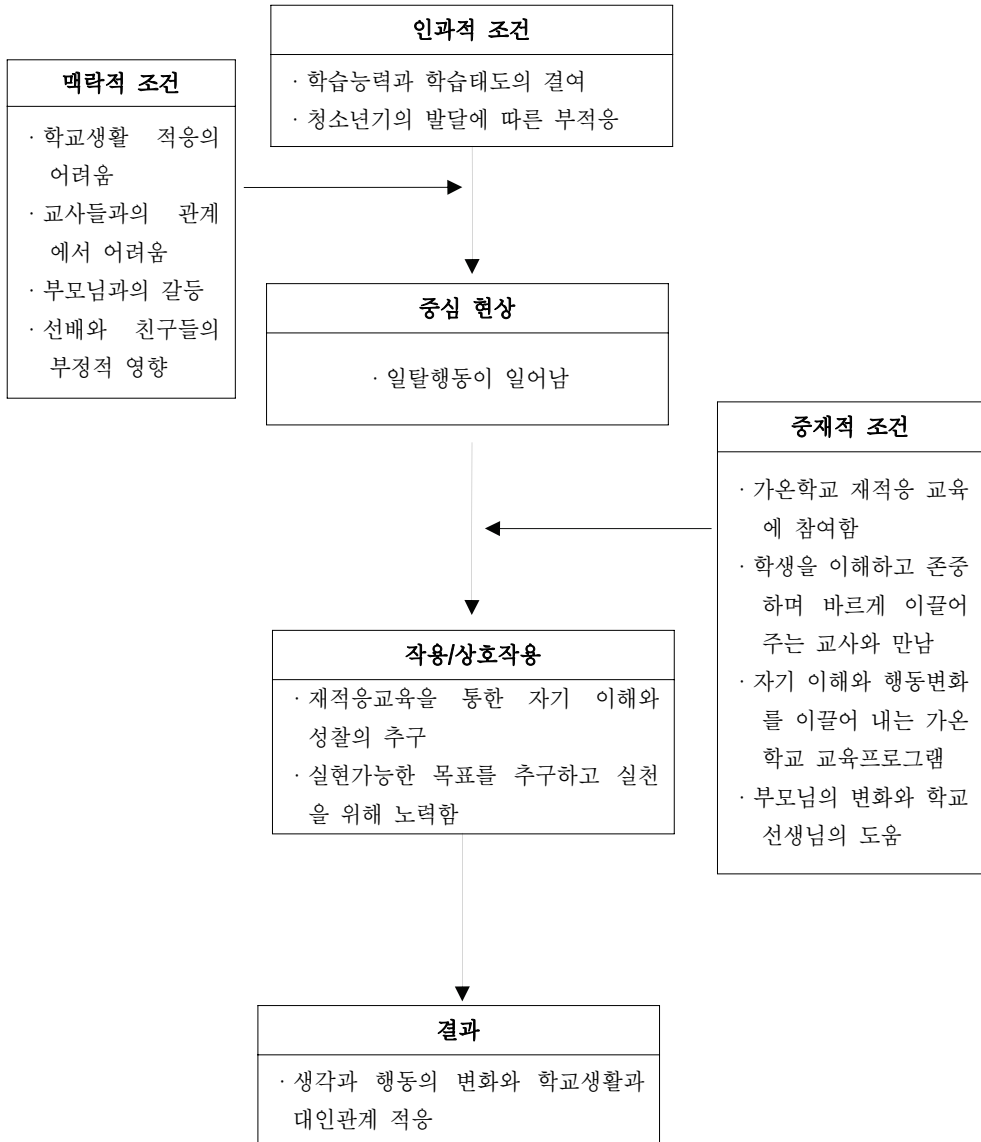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맥락 외의 다른 맥락과 다른 대상들에게도 적합한가, 그리고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그들 자신의 경험세계에서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며 융통성(transferability)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 학업중단 청소년인 가온대안학교 재학생에게 연구결과를 직접 보여주고 과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 결 과

### 학교부적응학생의 대안학교 재적응교육 적응과정에 관한 패러다임모형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면담과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얻은 개념은 총 284개이며, 이를 보다 추상화된 70개의 하위개념과 14개

의 범주로 범주화하였다. 이 14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그림 1의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학교부적응 학생의 대안학교 재적응 교육 적응과정에 관한 패러다임모형

###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왜 그 현상이 발생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학습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산만하고

집중이 안돼서 공부가 안 되거나, 공부가 하기 싫거나, 수업태도가 좋지 못한 것 등과 같은 '학습능력과 학습태도의 결여'의 정도가 '일탈행동이 일어남'이라는 중심 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었다. 그리고 ADHD와 같이 기질적으로 지나치게 충동적이거나 산만하거나 과잉행동을 하거나 집중이 되지 않거나, 또는 감정(분노) 조절이 되지 않거나, 또는 사춘기 증상처럼 반항하고 들떠서 친구들과 놀고 싶고, 이성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가고, 부모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등의 '청소년기의 발달에 따른 부적응'의 정도도 '일탈행동이 일어남'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전후관계나 상황들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대한 원인 조건들의 영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건들로 왜 현상들이 지속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부모님과 갈등', '선배와 친구들의 부정적 영향'이 '일탈행동이 일어남'이라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 3) 중심 현상

현상(phenomenon)이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주된 문제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대안학교 재적응교육에 참가한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일어났던 중심 현상은 학교에서 두발, 복장, 화장 등 규칙을 지키지 못하거나,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석을 하고, 흡연과 음주를 하고, 부모님 허락 없이 늦게 다니거나 외박이나 가출을 하고, 급우나 후배를 괴롭히거나 금품갈취를 하는 등 학교폭력을 자행하고, 선생님께 욕설을 하거나 대드는 등 교권침해를 하고, 절도와 도박, 성문제, 무면허 불법운전을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탈행동이 일어남'으로 나타났다.

##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이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중심 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으로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즉 중심 현상을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온학교 재적응교육에 참여함', '학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바르게 이끌어주는 가온학교 교사와 만남', '자기이해와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온학교 교육프로그램', '부모님의 변화와 학교 선생님의 도움'이 중재적 조건으로서 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 5)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은 연구 참여자들이 중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 행동을 말한다. 이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지는 전략적 혹은 일상적 행위나 반응으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언어적/비언어적인 것뿐 아니라 개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의나 검토를 지칭하기도 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가온대안 학교 재적응교육 적응과정에서 경험한 재적응교육을 통한 자기이해와 성찰의 추구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함'이 작용/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 6) 결과

결과(consequences)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내지는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상황에 반응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나타낸다(Strauss & Corbin, 1998). 즉,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와 학교 생활과 대인관계 적응'을 나타냈다.

## 학교부적응 학생의 대안학교 재적응 교육 적응과정 분석

학교부적응 학생의 대안학교 재적응교육 적응과정은 '학교부적응 단계', '일탈행동 단계', '재적응교육 참가단계', '배움과 이해단계', '변화와 적응단계'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 1) 학교부적응 단계

학교부적응 단계는 대체로 연구 참여자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참여자들의 학교부적응은 학습능력이나 학습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학업성적이 매우 낮은 편이다. 학습에 문제가 있는 참여자들을 살펴보면 개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던 참여자들이다. 이들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때도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특히 중학교에 들어와서 학습내용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공부가 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는 학업성적이 괜찮았는데 중학교에 들어와서 성적이 떨어진 경우이다. 이들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학교부적응과 관련해서는 중학교에 들어와서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선배들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과 어울리다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성적이 하락하였거나, ADHD, 충동성, 감정조절, 사춘기 증상 등 청소년기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습능력과 학습태도에 문제가 있는 참여자들은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수업시간이 더욱 힘들어졌다. 공부가 되지 않는 참여자들은 수업시간에 비슷한 친구들과 떠났을 하거나, 옆드

려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수업태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교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공부는 아예 취미가 없었어요. 운동은 잘했는데 그냥 쌤들도 그렇고 수업에 집중도 못하겠고.. 친구들과 어울렸죠.”(상철)

“학교생활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수업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랬어요. 수업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게 힘들었어요.”(정미)

“학급에서 그 전부터 좀 적혔어요. 2학년 들어와 가지고요. 담임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 한번 씩 책을 안 가져오거나 아니면 공책 필기 그런 거 안 해오거나 수행평가 그런 것도 대충 해 가지고 점수 못 맞거나 그래 가지고...”(상민)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변화 과정에 있으며, 기질적으로 ADHD 성향이 있는 참여자들도 있다. 이들은 충동적이고 산만하며 분노나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았고, 중학교 들어와서 갑자기 반항적이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등 사춘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까닭으로 기질 상 충동적 성향이 강하거나 다혈질적이거나 학습태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았다.

“화내는 거요. 명상센터 갔을 때도 그랬지만, 선생님한테 화나서 우리도 다 깬데요. 그때는 우리 켜지도 몰랐어요.”(혜영)

“제 친구는 저처럼 활발하고 좀 산만한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쉬는 시간이나 그럴 때요, 장난을 치니까 막 뛰어다니고...”(현민)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내가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집나가고 외박하고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하고...”(혜지)

공부에 대한 의욕이나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흥미롭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시간을 온종일 견뎌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학생들의 일탈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교칙이나 규정 등을 통한 규제는, 참여자들에게 최소한의 자유도 억압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 학교는 이들에게 생활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

“그냥 솔직히 친구도 싫고 선생님들도 싫고 학교는 저한테 불편하게만 했었어요. 학교란 나에겐 의미란 건 없고, 그냥 다녀도 안다녀도 필요 없는 그런 거...”(민정)

“학교생활에 좋은 점.. 딱히 생각해 본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친구 만나는 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대개 좋은 거 같아요. 학교는 그냥 가야 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미는 크게 없는 거 같아요.”(철우)

“학교에서 화장하고.. 그러니까 딱 것은 이제 선생님이 치마 같은 것은 터치를 안 하는데, 화장은 약간 좀 심하게 하면 제가 선생님을 피해 다녔어요. 종례 시간 안 들어가고 아침에 안 들어가고...”(정혜)

공부가 어렵고 학교생활이 의미가 없는 참여자들에게 더욱 힘이 들었던 것은 선생님들과의 관계였다. 학습능력과 학습태도의 결여로 학업이 부진하거나, 청소년기의 발달에 따른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 적응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선생님들의 계속되는 지적에 더욱 힘들어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나 수용 없이 이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아라고 지적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별주는 선생님들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말로써 대들고 욕하고 심하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저는 조용히 했는데 주위에서 떠드니까 저보고 머라 그랬어요. 제가 앞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저는 항상 조용히 있었어요. 제가 안했다 그러니까 계속 xx하잖아요.”(승진)

“2학년 2학기 때부터 수업시간에 본격적으로 잤어요.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그냥 껌 씹고 있으면, 막 “108배 절 하라” 그러고요. 자도 뭐라 그러고 복도에 추워 죽겠는데 “나가서 서 있으라” 그러면서 막 그러고... 제일 처음에 수업을 먼저 안 들었었어요. 수업을 하기 싫어서 친구들 하고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했죠.”(길재)

“그냥 제가 선생님을 싫어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문제가 생기면요, 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말다툼하다가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괜히 기분 나빠하시고 그렇거든요.”(민철)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 사이의 갈등, 아빠의 음주와 폭행, 가족의 부재, 이혼 등으로 힘들어 하였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에 평범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참여자의 학교생활 부적응 사실이 가정에 알려지게 되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거나 바깥생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였고 체벌을 통해서 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견디기 힘들었고 부모님과 관계에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되게 심하게 싸우셨거든요. 저랑 제 동생은 그걸 다 보고 있었고... 아빠가 엄마한테도 그렇고 뭐 칼 같은 것도 자주 들고 근데 제가 중학교 들어와서인 것 같은데 안 그러다가 뭐 땀에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칼 들고 엄마 때리고 이혼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아빠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혼하라고 아빠 그러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억이...”(민정)

“학교에서 나가라 카고 너 같은 학생 필요 없다 카고, 특하면 집에 전화해서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고, 거기서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고 아버지가 갑자기 야구방망이 들고 오셔서 테이프 감아서 정말 많이 때리셨어요. 엉덩이를.. 그래서 화가 나서 도망갔죠. 학교로 도망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니까 “왜 들어왔냐”고 하시면서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짜증나죠.”(승진)

## 2) 일탈행동 단계

참여자들의 일탈행동의 발단은 대부분 학교생활이 갑갑하고 공부가 되지 않던 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학교를 무단이탈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으로, 그 이면에는 학교의 획일적인 교육환경이나 교사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선배와 친구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선배들과의 만남은 중학교 입학이후 선배들이 다가오면서이다. 참여자들 중에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초기에 용모나 행동이 다른 학생들보다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우에 선배들이 먼저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들은 학교입학 초기에 선배들과 가까이 지내면 든든하겠다는 생각에서 선배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양 맺고 이러잖아요. 1학년 때 친구가 원래 알던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언니 친구가 갑자기 너희 학년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희 학반 찾아와서 양 맺자 얘기하면서 그랬어요.”(정혜)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깐 뭐 솔직히 무서운 것도 있었고 근데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근데 위에 뭔가 양언니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1학년 때는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정혜)

학습문제와 ADHD 성향이나 사춘기 증상 등 청소년기 발달상의 문제로 학업에 흥미를 잃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이해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던 참여자들은 선배들을 배경으로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급우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행동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행동이나 태도의 문제로 인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하던 참여자들의 이런 행동에는 친구들로부터 이해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친구들 전부하니까, 옆에서 제 혼자 해줄 것도 없고 그냥 옆에 있었죠, 근데 그게 망을 본 게 돼가지고 경찰서로 넘어가고 그랬어요. 집에서도 막 찾죠. 찾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 친구랑 좋았고...”(신남)

“그냥 놀고 싶었어요. 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막 노는 애들 잘 안 건드리잖아요. 무섭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걸 인정받고 싶었어요...”(민철)

“있어요. 친구들과 담배 핀 거... 밖에서 머 친구들 때문에 선배 때문에 흡치기도 배우고 오토바이도 한 다섯 대 흡쳤어요. 한번은 탈려다가 걸렸어요. 혼자 할 때도 있고 친구랑 할 때도 있고... 오토바이는 혼자 절대 못해요. 혼자하는 건 마트에서 먹고 싶은 거 흡치는 것... 나눠 먹으려고요. 친구나 선배 둘 다 영향을 받았죠.”(혜영)

연구 참여자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을 힘들어했다. 선배나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를 가지 않거나, 무단이탈하여 흡연과 음주 등 일탈행동을 하면서 자연히 귀가 시간은 늦어졌고 때로는 외박으로 이어졌으며, 가정에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면 가출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선·후배들과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면서 나를 학교에서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세력을 배경으로 친구나 후배를 괴롭히고 금품을 빼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폭력적 행동은 성장과정이나 학교생활에서의 피해의식과 같은, 참여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분노와 감정조절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참여자들의 일탈행동에 대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심하게 지적을 하거나 꾸중과 질책으로 지도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을 자극해서 반발심이나 피해의식을 더욱 키우게 되었고, 이것은 교사에 대한 반항이나 욕설, 폭언, 폭력적 행동과 같은 교권침해 행동도 나타나게 되었다.

“학교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제가 거기 왜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침에 학교 일찍 오라고 담배피지 말라고 하셔요... 규칙을 지키기 싫었어요.”(미진)

“선생님들이랑 자주 싸우고 그러고 또 애들 물건 훔치고 거짓말하고 아무한테나 손찌검하고 욕하고 하는 것들이 문제였어요.”(민정)

“그냥 가방 들고 튀었어요. 모르는 사람 가방이요. 야외 음악당에서 애들이랑 술 먹고 노는데 그냥 애들이랑 3명에서 가방 훔치자 그래 가지고... 훔쳐서 튀다가 걸렸어요. 경찰한테... 3번 해봤어요. 근데 처음 걸렸어요. 그냥 돈 때문에, 옷 같은 거 사고, 놀고 먹고...”(영민)

### 3) 재적응교육 참가 단계

참여자들은 일탈행동에 대한 처벌로 가운데안학교의 재적응교육 즉, 특별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징계로 인한 처벌로 특별교육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가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스스로 특별교육의 필요성을 납득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학교의 처벌로 내려진 특별교육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

“그냥 학교에서 가야 된다고 해서 왔고요. 와서 그냥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철우)

“처음에는 절대 납득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학교에 오기 전에 또 학교 또 이거 받기 전에 특별교육 하다가 또 학교에 가서 듣고 오잖아요? 학교 갔는데 그때도 선생님이랑 싸운 거예요. 말하다보니까 저 아직 납득이 안되는 데 말하다 보니까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징계 이렇게 다니는 것 “교통비도 학교에서 다 대줘야된다” 카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차피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정혜)

“그냥 싫었어요.. 학교 가는 것도 싫었고 별로 또 봉사 받은 게요. 학교에서 담배를 안 폼는데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붙어 있거든요. 저희가 흡연으로 되가지고 사회봉사 받은 게 그것도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학교 가기 싫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미치겠고 이래 가지고 가출했어요.”(민철)



참여자들이 재적응교육에 참여하기 전에는 가온대안학교에는 부적응 학생만 있다는 생각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교육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 교사에 대한 신뢰도 가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퇴학위기에 놓여 있어서 의의를 가지지 않았거나 학교가 아니면 좋다는 생각으로 왔지만, 혹시 나쁜 선배나 친구들을 만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었다.

“가온학교 밖에서 여기서 직접 와서 보면 다른데, 밖에서 들으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이렇게 ‘양아치 같은 애들 많이 간다...’”(민철)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 자체가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특별교육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별 받는 거니까..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교사에 대한 신뢰도 안가고 계속 짜증만 나서...”(진길)

“교육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때 얼마 하고 선생님이 거기 나쁜 애들 있으니까 뭐 나쁜 거 배우거나 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기대보다는 뭔가 걱정이...”(현민)

#### 4) 배움과 이해 단계

가온대안학교 특별교육에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없이 참가한 참여자들은 먼저 특별교육을 이끌어가는 가온대안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만남과 배움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가온대안학교 선생님들에게 좋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과의 첫 대면부터 일반학교에서와는 달리 자신에 대해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대해 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집단상담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문상담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장점을 보려하시고 격려해주며 조그만 변화를 중시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곳 선생님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정해주고, 잘못해도 포용해주시니까...”(정훈)

“여자든 남자든 좀 심하게 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도 참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일단 무조건 다그치기보다는 말로써 먼저 얘기하고 애를 이해해 줌으로써 같이 또 얘기하고 그러시니까 도움이 되죠.”(민정)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 태도가요 그 만약에 애가 있으면 개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보려고 하시는 같아요. 저한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옛날에는 제 장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단점만 찾았는데 이제는 제 단점보다 장점을 많이 보일려고 노력하니까 자신감이 좀 생겼고 그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현민)

가온대안학교 선생님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느낌을 받게 된 참여자들은 가온대안학교의 특별교육을 통해서도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가온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하면서 거부감은

변하게 되었고 오히려 가온학교 교육에서 재미있고 좋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가온학교에서의 일주일이 고등학교 2년보다 알차고 재미있고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생각이 되었고, 가온학교에 다니고 싶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고, 학교에 가셔도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가온학교의 교육이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여기 못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1주는 할 수 있는데 4주는 못 다닐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가온학교 교육이 좋았어요.”(정혜)

“도움이 안 된 부분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벌 받으면서 일주일 온 거 저는 시간 낭비일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와서 솔직히 와서는 이렇게 교육이지 학교 수업이 아니잖아요. 시간 낭비일거라 했는데 의외로 학교생활 이제 고등학교만 따져도 이제 2년이 다 되 가잖아요, 1년 반이 넘었잖아요.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 2년 동안 한 거보다 더 알차고, 이 일주일이 더 알차고 더 재밌었고 느낀 것도 많고 더 좋았어요.”(민철)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존재? 힘들 때 마다 생각나서 좌절하고 너무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어도, 가온학교 생각나면 또 내가 이랬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아깝지 이런 생각으로 버티는 거 버팀목...”(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가온대안학교 제적응교육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꿈에 대해 배우고 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 교육 중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것은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인성교육과 행동교육을 통해서 분노와 감정조절에 대해 배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배움의 과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집단상담에서 제 문제점 같은 걸 말하고 그냥 왜 왔는지를 말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신남)

“변화한 거는요, 여기서 많은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겪어서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돼서 나도 이제는 이렇게 돼야지라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었고요. 저를 이해하기 됐다고보다는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됐어요.”(민철)

“지금 저를 이까지 오게 만든 그 정도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죠. 저한테는 진짜 솔직히 제가 여기에 안 왔다면 이런 교육 받지 못했다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계속 저는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좋아졌을 거란 생각 없거든요. 여기 안 왔으면 지금보다 더 심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공부도 안하고 아예 걱정도 없고 그냥 마냥 노는 거나 할 거고 학교도 안가고... 지금은 학교는 무조건 가고요. 무조건 일주일에 3번은 책을 읽어요. 급식은 무조건 먹고 급식 먹을 때 항상 애들 다 앉으면 먹어요. 가온학교에서 했던 것처럼...”(민정)

### 5) 변화와 적응 단계

이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가온대안학교의 재적응교육에 참여해서 다양한 배움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고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 적응하게 되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가온대안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서 꿈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참여자들은 꿈이 생겨났으며 이타적인 꿈을 꾸게 되었다.

“아~ 있죠! 꿈이 없었잖아요. 진로교육으로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겼어요. 그니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될 희망은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다 해도 일단 하고 싶으면 일단 꿈으로 놓고 봐요.” (민정)

“앞으로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 온 그게 있잖아요?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제가 산 것 중에서 살아 온 게 있으니까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제 주위에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싶고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 그래요. 꿈은 꿈이랑 목표가 달라요. 두 개가 다른데요. 그니까 꿈은 그냥 이게 비현실적일수도 있는데요. 절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요. 제 같은 경험은 절대 안했으면 좋겠어요. 목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요리사가 되는 거죠.”(민철)

연구 참여자들은 나쁜 친구나 선배와 어울리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하였다. 좋은 습관과 태도가 생기고 생활이 변화하여 자신이 떳떳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울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감정을 조절하게 되어 관계를 맺을 줄 알게 되었고 대인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많이 배우고 나니 학교에 빨리 가고 싶고 이거를 내가 달라진 점을 내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행동에서 옛날에는 그 반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친구가 물건을 만약에 떨어트렸으면요. 그냥 무시하거나 가만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물건을 떨어트리거나 눈이 잘 안 보이는 친구가 뭐가 잘 안 보인다 싶으면요,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주고...”(현민)

“우울함과 자신감이 없는 것이 없어지고 있고 많이 밝아졌습니다.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민정)

“예전에는 선생님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를 많이 봐주는 게 있었어요. 딱 아이들이 재는 뭐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정혜는 뭐 이야기하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딱 아이들 해도 제가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떳떳해요.”(정혜)

### 핵심범주 : 대안학교 재적응교육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목표추구에 노력하여 변화와 적응하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심 현상인 '일탈행동이 일어남'을 해결해가는 과정은 '대안학교 재적응교육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목표 추구에 노력하여 변화와 적응하기'라고 명명하였다.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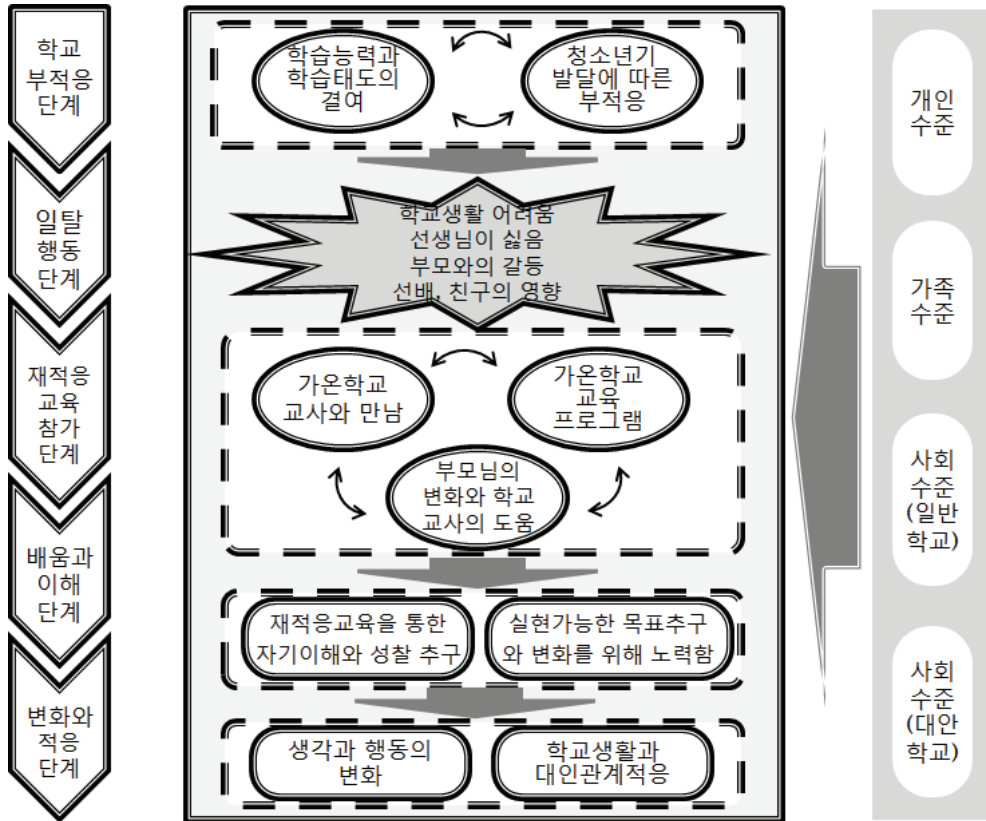
기 이해와 목표 추구의 노력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작용/상호작용 범주이다. 이는 중재적 조건으로 제시한 네 가지 범주 - 가온학교 재적응교육에 참여함, 학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바르게 이끌어주는 교사와 만남, 자기이해와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온학교 교육프로그램, 부모님의 변화와 학교선생님의 도움 - 의 영향을 받으며 일탈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변화와 적응이란 부적응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변화와 적응이라는 의미는 작용/상호작용 범주의 이해와 성찰, 목표 추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이해와 성찰을 추구하고 자신의 목표 추구에 노력하는 것이 변화와 적응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일탈행동에서 벗어나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 적응해가는 과정은 가온대안학교 재적응교육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목표 추구에 노력하여 변화와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상황모형

상황모형(conditional matrix)은 현상과 관련되는 다양한 조건(인과적, 맥락적, 중재적)들이 미시적, 거시적 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관련되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상황모형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들을 미시적 수준에서부터 거시적 수준까지 고려하여 현상에서 도출된 범주들 간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분석하도록 도와준다. 이 단계는 모든 다양한 부분을 통합하고 틀을 만드는 단계이며 현상에 대해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해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대안학교 재적응교육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목표 추구에 노력하여 변화와 적응하기'의 과정에 대한 상황모형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학교부적응 학생 개인 수준에서부터 가족 수준, 사회 수준으로 확장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학교부적응 학생의 대안학교 재적응교육 적응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2] '대안학교 재적응교육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목표추구에 노력하여 변화와 적응하기' 상황모형

##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문헌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학교부적응의 근본적 원인은 대부분 학업문제 즉, 학습능력과 학습태도의 결여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성적이 5등급 중 최하위에 속하고 있었다. 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지 않았거나, 중학교에 들어서서 공부가 어려워지면서 성적이 하락하였다. 이들은 학습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공부가 되지 않았고,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딴 짓을 하거나, 엇드려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과제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학습능력과 학습태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교사와의 관계가 악화되게 되었다.

학교부적응과 학업과의 관계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다. Rutter(1987)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주위가 산만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며 학업성적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기간이 지속되면 실패감이 누적되어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은 단순히 수업능력으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생활 부적응 및 비정상적 생활태도로 표출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전재일, 1997). 본 연구결과는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유형이 학업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다는 연구(이경은, 1998)나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학업성적이 가장 많다는 연구(채구목, 1997)와 유사하다. 그리고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학교부적응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이명숙, 이규민(2009)의 연구와도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학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는 차원이 아니라, 학교부적응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 학업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의 여러 요인들, 학교요인, 교사요인, 교우관계요인, 가정요인 등도 대부분 그 발단이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결과,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일탈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인과적 조건이 학습능력과 학습태도의 결여가 심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부모님과과의 갈등, 그리고 선배나 친구들의 부정적 영향 등이 맥락적 조건이 되어 일탈행동이라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일탈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청소년기 발달에 따른 부적응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충동적이고 산만하고 참을성이 부족하였다. 그냥 가만있기가 힘이 들고 따라서 학교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화가 나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 중에는 ADHD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이 중에는 ADHD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검사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중에는 사춘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중학교 입학 무렵에 갑자기 자신과 친구들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친구들과 있는 게 더 편하고 들떠서 놀고 싶고, 자신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말리는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고 짜증이 나고 엄마가 이상하게 보였으며 아무에게나 반항하고 싶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늦은 귀가, 외박 등 부적응 행동을 하였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춘기 증상을 보이지만, 참여자들은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발달에 따른 부적응은 학습태도나 학교나 교사에 대한 태도 등에도 영향을 주어 학습능력과 학교 적응력도 저하되었다.

청소년기의 발달문제와 관련해서 Roeser와 Eccles(1998)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초기 청소년 기간 동안 학업적, 심리적 기능에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 7학년 초에서 8학년 말까지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학업적 능력과 학교 가치감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이 낮아지며, 수업이 탈, 무단결석, 그리고 분노감정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진애선, 2007).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동이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도기로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대인관

계에 있어서의 적응도 순조롭지 못하여 타인을 괴롭히고 스스로도 고민하는 시기이다(서형석, 2004). 따라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학교 부적응의 원인으로 청소년기의 발달에 따른 부적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일탈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인과적 조건으로 선행 연구와 같은 청소년기 발달에 따른 부적응이 심하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요인과 교사요인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생활 적응과 교사들과의 관계를 힘들어 했다. 왜냐하면 학업에 힘들어 하는 참여자들에게는 획일적인 지식교육만을 하는 학교는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규칙 등 제제가 심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힘들어 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교사는 지적만 하고 이해해주지 않으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며 부당하게 간섭하고, 위압적으로 폭언과 체벌을 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교사와의 충돌로 인한 갈등으로 힘들어 하며, 이해하고 도움 주는 교사를 기대하지만 그런 교사들은 많지 않았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교교육 환경, 교사들의 태도, 교육과정의 문제 등이 있는데, 학교교육 환경에서는 다수 학생 보호를 위해 부적응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과 자퇴처리 등 처벌위주의 학교 행정이 이루어지거나(류은정, 2006), 교칙의 운영에 융통성이 없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게 될 때, 교과과정이 학생의 흥미나 적성에 관계없이 입시위주로 돌아갈 때, 학교의 분위기는 학생의 발달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양국선, 2001).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적응은 주로 학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그동안 주된 관점이었다(안병영, 김인희 2009). 그런데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학교에 대해서 공부 외에 단체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가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가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중요한 대상이며, 의미 있는 존재이다(김주환, 2005).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되거나 부적응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부모 및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학업적 대처 등의 측면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보다 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문은식, 2002; Ryan, Stiller, & Lynch, 1994). 그러나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사의 지적, 징계, 차별 등으로 인한 불만이 많았다(정민선, 김현미, 유순덕, 2011). 이렇게 교사, 특히 담임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친다(구자은, 2000).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이 일탈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맥락적 조건으로서 학교생활 적응에서의 어려움과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과 갈등으로 힘들어 했다. 부모님과 갈등은 부부 갈등이

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의 부재, 어머니와의 심리적 갈등, 아버지의 음주와 폭력 등에서 비롯된 가정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참여자들의 학업문제에서 비롯된 학교생활 태도와 관련된 갈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 26명 중 21명의 학생들의 가정은 결손이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이들 참여자들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학교생활 태도와 관련된 갈등도 대부분 가정에서의 이해와 지지부족, 대화부족, 문제해결력 부족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부적응은 주로 학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그동안 주된 관점이었다(안병영, 김인희, 2009). 학교부적응 학생의 상담과 지도를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학교부적응의 원인을 학생 자신에게 두고 이들에게 부족하거나 결여된 특정 심리적 요소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나 교육기관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성장환경에 관심을 두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가정환경의 문제가 학교부적응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입장에서 학교폭력 대책 등에서 가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부적응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학교요인이 가장 많고 가족요인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요인 중 학교스트레스가 주는 영향이 제일 높고, 가족요인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세레나, 2007). 그런데 학교부적응의 가정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은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결손, 빈곤, 무관심, 가정불화 등 가정의 구조적 측면에 주목을 하고 있었다(김민, 2011; 김지혜, 안치민, 2006; 최병수, 2011).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문제나 부모행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발생하는 문제, 권위주의적 양육방식과 지나친 체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 가족의 기능적 측면도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김세레나, 2007).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들의 지속적인 불화, 무관심, 몰이해나 지나친 간섭 등으로 불안한 정서를 가지거나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성적, 교우관계에서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좌절감이나 분노감을 증폭시키게 된다(전두배, 2006).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이 일탈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맥락적 조건으로서 부모님과의 갈등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참여자들은 대부분 학교문제로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고 아버지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는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한 참여자는 자신의 학교부적응에 대해 체벌을 하는 등 폭력적으로 대하던 아버지가 재적응교육 참가 이후에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무척 좋아하였다. 이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학교문제로 아버지에게 맞았기 때문에 학교는 여전히 싫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생활 문제가 가정에서의 부모님과의 갈등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중학교 입학 후 선배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학교 들어와서 선배들이나 친구들과의 어울림을 통해서 일탈행동을 배우게 되었다. 이들은 선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흡연, 음주뿐만 아니라 학교이탈, 외박과 가출, 폭력과 금품갈취, 교권침해, 절도와 도박, 오토바이 불법운전 등을 하게 되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는 친구들에게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은 아동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독립욕구로 인해 부모와의 공감이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래 집단과 관계가 부적절하거나 또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일탈행동을 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위험요소이며, 특히 청소년 비행에 있어 비행동료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이원이, 김동일, 2009). 사회적 학습이론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이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라 할 수 있다. 비행친구들은 비행행동을 하게 될 동기를 부여하고, 비행행위를 한 후에 비행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강화를 받았을 때 문제청소년들은 비행행동을 계속하게 되며 결국 비행청소년이 된다(정석원, 2005). 이와 같이 주류문화에 속하지 못하고 그에 상반되는 하위문화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형성한 비행 하위문화 속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지위를 획득하고자 한다(Cohan, 1955).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이 일탈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맥락적 조건으로서 선배와 친구들의 부정적 영향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학교부적응학생의 재적응교육 적응과정에서 패러다임 모형의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 그리고 현상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학교부적응의 원인이나 심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기부터는 패러다임 모형의 중재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 그리고 결과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재적응교육 적응과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여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가온대안학교 교사들과의 만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처벌로 받게 된 재적응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마지못해 참여하였지만 재적응교육을 이끌어가는 가온대안학교의 교사들을 만나면서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가온학교 교사들이 일반학교 교사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 교사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적만 하고 이해해주지 않으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며 부당하게 간섭하고, 위압적으로 폭언과 체벌을 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가온학교 교사들은 학교교사들과는 달리, 참여자가 가진 문제점을 보기보다 참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인정해주며, 배려하고 재미있게 대화하고 잘 들어주며, 장점을 보고 변화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재적응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가온대안학교 재적응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가 학교부적응학생의 학교적응에 선행조건이 된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교부적응이 지도하는 교사에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이승휴, 2004)를 지지하

고 있다. 또 학생들이 대안학교의 재적용 교육을 통해서 교사를 새로운 버팀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면서, 원적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고 교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연구결과(박영재, 2004; 최해룡, 김성희, 2012)도 지지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교사의 행동이 수용적일수록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김희수, 윤은중, 2004), 교사와의 관계 개선이 학교규칙 준수 노력과 학업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조규필 외, 2011).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는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자의 평가 이상으로 자신의 판단과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요 타자의 평가가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평가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실제 자신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Felson, 1985). 이것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될 때 학생의 자기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사와 부모의 평가가 중요하며, 교사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 이런 영향력 있는 타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게 되므로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에도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탁형 대안학교인 꿈타래학교 학생들과의 면접을 통한 학교적응 촉진요인에 대한 연구결과, 학생들은 교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신감을 획득하고, 변화를 지속할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이원이, 김동일, 2009).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이 자기이해와 성찰을 추구하고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작용/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중재적 조건으로서, 학생을 이해하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가온학교 교사와의 만남의 영향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연구 참여자들은 가온대안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가온대안학교의 재적용 교육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자유롭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과 활동에서 도움을 받았고, 자유롭고 편안한 대화나 상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접하고 제대로 행동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를 통해서 인식을 바꾸고 변화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학교는 전통적으로 청소년들의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이나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인간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조직체이다.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이 바로 청소년기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김용호, 2010).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흥미를 발견하고 깨는 일을 도와주며, 사회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박장환, 1996). 그런데 개성과 적성을 무시하고 다수의 경향을 따르게 하는 획일적인 교과과정을 강요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부적응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김용호, 2010).

전술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학업의 문제 즉 학습능력과 학습태도에 문제가 있었으며,

집중이 안 되고 과잉행동을 하며 산만하고 충동적이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일반 학생들과 경쟁을 통해서 똑같은 성취를 요구한다는 것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교육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온대안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표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과정 지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이 자기이해와 성찰을 추구하고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며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작용/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중재적 조건으로서, 자기이해와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온대안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구 참여자들은 재적응 교육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다짐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온대안학교 재적응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방법을 배우고 꿈을 가지려고 생각하였으며 꿈을 위한 실천방법을 배우려고 하였다.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찾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꿈을 가지게 되었다.

Lazarus(1969)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특성 중 하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의식의 결핍되어 있다고 했다. 부적응 학생은 단순히 학교에서만 부적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학교부적응은 진로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진로의 희망을 찾은 후 학교에 잘 적응하는 학생이 많다(이재림, 2008). 이와 같은 맥락으로 꿈타래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결과, 미래 포부를 갖게 된 것이 학교적응의 결과이자, 학교생활에 보다 의미와 의욕을 갖게 하는 학교적응 촉진요인이라 진술하고 있다(이원이, 김동일, 2009).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이 학교부적응과 일탈행동에서 벗어나 생각과 행동의 변화와 학교생활과 대인관계 적응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하는 작용/상호작용으로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 연구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재적응교육 적응과정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가온대안학교라는 대구의 도시형대안학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재적응교육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었다. 그런데 재적응교육기관의 운영형태나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담당자의 교육관이나 학생에 대한 태도나 경험에서의 차이 등에 따라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적응 교육기관에서 학교부적응학생 재적응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결과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강기에 (2014).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과 대인관계 및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금주 (2007).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가해머느리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숙 (201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 (201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세레나 (2007).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호 (2010).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요인 분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2005). 부적응학생의 일탈행동에 대한 전문상담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식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안치민 (2006).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과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17(2), 133-157.
- 김희수, 윤은종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93-115.
- 류은정 (2006).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가정환경 요인과 개인적 특성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근수 (2003).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과정. 서울: 학지사.
- 박영재 (2004). 대안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경험과 변화.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장환 (1996).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형석 (2004). 고등학교 일반학생과 부적응학생의 인성 비교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순용 (2007).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

- 년을 대상으로.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경림, 고명숙, 공병혜, 김경선, 김미영, 김은하, 노승욱, 노영희, 양진향, 조명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심의보 (2015). 학교부적응에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병영, 김인희 (2009). 교육복지정책론. 서울: 다산출판사.
- 안영숙 (2012). 학교중도탈락 청소년들의 복교 후 학교적응 과정과 유형.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국선 (2001). 중퇴경험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 (1998). 학교생활 부적응 유형과 요인에 따른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숙, 이규민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개념, 학교적응 및 학교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10(1), 167-193.
- 이승휴 (2004). 도서지역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여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익, 김동일 (2009).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적응 촉진요인. 상담학연구, 10(4), 2495-2515.
- 이은정 (2001). 중고등학생의 학교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실태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림 (2008).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진로선택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두배 (2006). 진로탐색프로그램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재일 (1997). 학교사회사업. 대구: 사회복지개발원.
- 정민선, 김현미, 유순덕 (2011)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지속 요인에 관한 질적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9(1), 87-105.
- 정석원 (2005).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동향과 그 대책.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규필, 박현진, 김래선, 김범구, 양대희, 이현진, 황수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재적응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 진애선 (2007). 중학생의 탄력성 요인과 학교적응 간 관계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구목 (1997).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치유방안-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0, 227-252.
- 최병수 (2011).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대안교육 운영 개선 방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

- 육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숙 (2004). 여성의 이혼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해룡, 김성희 (2012). 학교부적응 학생의 대안학교 재적응교육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상담학연구, 13(3), 1407-1423.
- 황인국 (2007). 위탁형 대안학교에서의 학생변화 과정 이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ohan, A. K. (1955).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gang*. Glencoe, IL: Free Press.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접근). 서울: 학지사.
- Felson, R. B. (1985). Reflected appraisal and the developmental of self.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8(1), 71-78.
- Gelso, C. J. (1979). Research in counseling: Methodological and professional issu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8(3), 7-35.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Lazarus, R. S. (1969). *Patterns of adjustment and human effectiveness*. New York: McGraw-Hill.
- Roeser, R. W., & Eccles, J. S. (1998). Adolescents' perception of middle school: Relation to longitudinal changes in acade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1), 123-158.
- Rutter, J. B.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Ltd.
- Strauss, A., & Corbin, J. (2001b).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신경림 역.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현문사.

# **A Grounded Theory on Readjustment Education of Alternative School for Maladjustment Students in School**

Choi, Hae Yong

GAON Alternative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theory regarding the effective education program in which education of school readjustment for maladjustment students was progressed in school. I choose the participants among the students who were participated in educaion in GAON alternative school affiliated with Youth alternative institute of DAEGU in at second semester, 2012. I analyzed material from interview with open coding and axial coding, selective coding and the results is as the following. It comes 294 concepts and 70 sub categories of the concepts and 14 sub categories. These 14 categories are major factors related to education of school readjustment for maladjustment students. It is as the following for the result of the relation among factors with paradigm model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education of school readjustment for maladjustment students in alternative school. 'The results of analysis for change step related to readjustment education through process analysis, comes to 'school maladjustment step' and 'participant in readjustment education step', 'learning and understanding step', 'change and readjustment step'. The main category of this study comes to 'understanding themselves and pursuing the objective and change to adjustment'. The result of relation among change and factor,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deviant behavior in school maladjustment process and understand themselves, try to get objectives through readjustment education in GAON alternative school.

*Key words* : *Student maladjusted in school, Alternative school, Education for readaptation, Grounded theory*

